

##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에 나타난 칼빈의 음악관

Calvin's Attitude towards Music Appeared in the  
*Genevan Psalter of 1542*

강 경 립 \*

### Abstract

The Preface to the Genevan Psalter of 1542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single document for arriving at a proper understanding of Calvin's attitude towards music.

The notion that Calvin had nothing laudatory to say about music is obviously erroneous. The Preface proves beyond doubt that Calvin had a definite theory of music, namely a dual one of a text and a melody. The melody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 can immeasurably enhance the text, and it must therefore be neither light nor frivolous, but have a weight and majesty appropriate to the text. There is only one text appropriate for truly religious usage, namely the Psalms of David, for no one is able to sing things worthy of God except that which he has received from Him, and these Psalms were divinely inspired when God put forth His hand to aid man.

Above all, music must play a capital role in the liturgy of the Church. It is inextricably linked with prayer, and these together with preaching and the Sacraments form the three indispensable aspects of liturgical observance. To be quite precise, music in the Church is "more necessary than one can say".

Calvin's Preface reveals itself as a document written certainly by a great religious Reformer. Nevertheless, it is in complete accord with one of the leading humanistic musical trends of the 16th century.

---

\* 신학과 조교수

## 머 리 말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특히 칼빈과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예술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할 것이다.”<sup>1)</sup>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예술에 대한 칼빈의 자세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뮌츠(M. Münz)는 칼빈을 두고 “오만하고 잔인한 자”, “종교개혁 지도자들 중 가장 광신적인 자”, “가장 무자비한 이상 공포증 환자”, “일격에 마음과 영혼을 시들게 한 자”,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떤 예술이든지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독교 강요』의 저자를 보겠는가?”<sup>2)</sup> 하고 혹평을 가했다. 더우기 칼빈을 비방하는 자들은 특별히 음악을 꼬집어서 이야기한다. 그 한 예는 「프랑스 유그노 시편 성가집」의 저자인 두앵인데, 비록 그가 프로테스탄트인 동시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칼빈을 평가하고 있다:

“제네바의 교황이요, 무미건조한 영의 소유자인 칼빈은 루터를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결여했으며.... 그는 모든 쾌락과 오락, 심지어 예술과 음악의 敵이다... 칼빈은 권위주의적 교조주의, 反교양주의, 反예술적, 反인간적, 反기독교적 전형이다.”<sup>3)</sup>

영국인 홀라는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음악을 종교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인지한적도, 심지어 음악을 헌신을 위한 보조물로서의 진가를 인정한적도 없어 보인다.”<sup>4)</sup>고 한 강연에서 자기 심경의 일단을 토로하였다. 그리하여 마임부르(Maimbourg) 역시 “칼빈주의는 해골의 종교이며... 생명도 없고, 종교적 감흥도 없다... 칼빈은 종교를 전적으로 건조하게 만들었으며, 자기 자신의 기질에 순응시켰다.”<sup>5)</sup>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1) Brunetière, cited in E. Doumergue, *Jean Calvin* (Lausanne, 1910), II, 481.

2) Emil Doumergue, “Music in the Work of Calvi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7, No.4 (October 1909), 531에서 재인용.

3) Orentin Douen, *Clément Marot et la Psautier Huguenot* (Paris, 1878-79), I, 377, cited in Doumergue, *ibid.*

4) John Pyke Hullah, *The History of Modern Music*, 2nd.(London, 1875), pp.57-58, cited in Charles Garside, Jr.,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 a Re-Appraisal,” *The Musical Quarterly* 37 (1951), p.566.

평들은 칼빈 연구들이 부흥하기 이전의 학자들에게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다.<sup>6)</sup> 그러나 칼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된 후에도 음악에 관한 칼빈은 소외되고 있었다. 알들러의 「음악사 개론」(Handbuch der Musikgeschichte, 1930)에서는 그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음악, 역사, 그리고 이념들”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다루는 장에서도 그를 지나쳐 버리고 있다. 프리드리히 블루메(Friedrich Blume)는 그의 책, 「개신교 교회 음악」(Die Evangelische Kirchenmusik, 1931)에서 칼빈을 오로지 삽입구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1946년에 부스진은 “음악에 대해 무관심한 아니 차라리 적대적인 칼빈”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sup>7)</sup> 그때만 하더라도 “예술과 미에 관한 칼빈의 견해들에 관하여 학문적인 연구가 걸음마 단계”<sup>8)</sup>에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같은 발언은 그리 놀랄 일도 못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 까지 간헐적으로 칼빈의 다양한 글들에서 그의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도출해 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어서 다루어질 음악에 대한 칼빈의 생각들과 자세들은 그의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에 나타난 칼빈의 음악관은 특히 16세기 인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질 것이다. 또한 칼빈 연구가들의 설명을 많이 언급하기 보다는 칼빈 자신이 말하도록 진행될 것이다.

## I. 칼빈의 인문주의 적응

“칼빈은 그의 경력을 인문주의자로서 시작했으며, 결코 인문주의자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의 학창 시절의 고전 연구들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sup>9)</sup> 칼빈이

5) Doumergue, op. cit., p.531.

6) 이 부흥에 관한 초기 자료로는 J. T. McNeil, *Thirty Years of Calvin Study*, in *Church History*, XVII (1948), 207-40을 보라. 이러한 발전에 관한 훌륭한 요약은 R. N. Carew Hunt, *Calvin* (London, 1933)의 서문 7-11쪽을 보라.

7) Walter E. Buszin, “Luther on Musik,” *The Musical Quarterly*, XXXII (1946), p.80.

8) T. H. L. Parker, “A Bibliography and Survey of the British Study of Calvin 1900-1940,” in *The Evangelical Quarterly*, XVIII (1946), p.130.

9) A Mitchell Hunter, “The Erudition of John Calvin,” *The Evangelical Quarterly*, XVIII (1946), 200.

인문주의에 적응했느냐의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칼빈은 학창 시절에, 특히 빠리에서, 인문주의 교사들을 접하게 되었다.<sup>10)</sup> 그는 마저리트 궁에서 회합을 가졌던 Lefèvre와 Roussel과 G. Budé, 그리고 그 외 다른 이들과 교분을 가졌다.<sup>11)</sup> 칼빈의 「올리베땅 프랑스 성경」의 1535년판 서문은 이 인문주의자들의 작업과 제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sup>12)</sup> 칼빈은 인문주의 사상가들과의 관계를 그가 제네바에 도착하여 종교개혁자로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시켰다.<sup>13)</sup> “인문주의”에서 “기독교 인문주의” 내지 “복음적 인문주의”<sup>14)</sup>에로 탈바꿈한 것을 나타내 보여 줄만한 어떤 사건 내지 일련의 사건들을 지적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 교회에 “개종”했다.<sup>15)</sup> 칼빈은 개종 이후에도, 다른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인문주의 운동에 공동되는 어떤 이상들을 긍정하였다. 그는 인문주의 학문들이 기독교 생활을 위한 필수임을 계속 이야기하였다. 신빙성있는 고전 본문 연구, 고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고전적 수사학의 명료함과 온건함을 모방하는 것을 칼빈은 높이 평가하였으며, 개혁과 성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6)</sup> 고전 작가들의 “예술”이 비록

- 10) 칼빈은 Marche대학에서 Maturin Cordier로부터 라틴어를 배웠는데, Cordier는 그 대학의 라틴어 교수법 교사였으며 후일에 제네바와 로잔 학교들을 설립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다. 오를레앙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프랑스 법학자였던 Pierre de l'Estoile와 함께 연구했으며, 독일 학자인 Melchior Wolmar에게서 헬라어를 소개받았다. Bourges에서 그는 이탈리아인 인문주의자이며 법학자인 Alciat의 강의를 들었다. See *Vita Calvini*, C.O., XXI, 122. Quirinus Breen,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 (2nd ed.; Hamden, Conn.: Archon Books, 1968), pp.17, 45-46.
- 11) Nicolas Cop, Robert Olivetan, François Daniel, Nicolas Duchemin, 심지어 Rabelais(프랑스 풍자 작가 라블레)까지 칼빈이 알고 지낸듯하다. 덧붙여서 그는 빠리와 오를레앙과 Bourges에서 공부할 동안 Lefèvre와 멜랑톤과 루터의 저작들을 접하게 되었다. Wendel, *Calvin*, pp.19-20, 23.
- 12) C.O., IX, 787-90. Cf. Vienot, *Histoire de la Réforme française*, pp. 198- 99. C.O.를 설명하는 각주 27번을 보라.
- 13) Cordier는 제네바에 초청을 받았다. supra, p.235. 칼빈은 슈트라스부르의 장 슈투름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은 학문과 경건이라는 인문주의적 이상에 충실한 학교였다. See Wendel, *Calvin*, pp.61-2. Cf. John T. McNeill,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146.
- 14) 이러한 용어들은 Vienot이 사용하고 있다: *Histoire de la reforme française*, pp. 185-188.
- 15) Breen은 칼빈의 개종은 인문주의적 관심의 포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종교적 본성의 자유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16)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인데, 언어와 성경과 고전 작품에 관한 강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See, *Joannis Calvin Opera Selecta*, ed. by P. Barth and W. Niesel, Vol. II (1952), pp.368-70. 이하로는 O.S.로 약칭한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신의 작품에 성실하게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지나친 종교적 의식들을 혐오하며 또한 도덕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토아 학파의 어떤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sup>17)</sup> 그의 첫 문필적 작품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다. 게다가, 마저리트의 절친한 동료들의 이상들 중 몇가지 즉, 교회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기독교 군병” 혹은 “순례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내적 왕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을 칼빈은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sup>18)</sup> 그러나 그는 이 동아리의 많은 침묵들을 기다릴 수 없었다. 영적 종교에 유해한 구조들은 관용되어서는 안되며, 그것들 본래의 뜻에 일치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항변은 인문주의와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인문주의자들의 인문주의적이고 개혁적인 노력들로부터 기인된 이념적 입장과의 결별을 뜻한다고 하겠다. 칼빈의 인문 연구들은 그로하여금 다른 행동의 결과를 낳도록 만들었다.<sup>20)</sup>

Breen의 견해에 따르면, 이 교과 과정은, 만약 누군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는 먼저 인문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John Calvin*, p.155. Josef Bohatec은 그의 책, *Budé und Calvin Studien Gedankwelt des französischen Frühhumanismus* (Vienna: R. Spiess und Co., 1950), pp. 123-24에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칼빈에게 있어서 둘 다 종교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교과 과정과 마찬가지로 칼빈의 작품들은 그가 고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알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에라스무스도 프로테스탄트가 되지 않았던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성경 본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음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

- 17) Breen,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 p.148에서는 문체에 대한 칼빈의 관심을 논의하고 있다. Cf. Wendel, *Calvin*, pp.24-25에서는 칼빈이 Alciat에 대한 l'Estoile의 변호에 있어서 Duchemin과 연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Alciat가 칼빈에 대해 “정확하고 조화있는 라틴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Supra*, pp.235-36.
- 18) Bohatec은 *Budé und Calvin* pp.241-42에서 「기독교 강요」(1536) 첫 판 서두에 나오는 “cognitione Dei ac nostri” 절을 기독교 지식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Budé의 주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See C.O., I, 27. 이와 유사하게 Spiess는 *Die Gottesbegriff des J. Faber Stapulensis*, pp.127, 170-76에서, 칼빈이 참된 예배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의 인간의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Lefèvre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중세 금욕주의의 견해들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고 있다.
- 19) 로마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칼빈의 경고에 주목하라. see *infra*, pp.326-27. 그의 “De Scandalis”(C.O., VIII, 1-84)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교회 규율을 앞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문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있다; cited by Bohatec, *Budé und Calvin*, pp.121-23.
- 20) 칼빈은 교회의 본성에 관해 사돌렛과 다른 입장을 취했으나, 두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학생들이었고, 서로에게 교양있는 사람들로서 정중한 존중을 표했다. See “Responsio ad Sadoleti epistolam,” C.O., V, 385. 게다가 칼빈은 어떤 인문주의자들이 품고 있던

## II.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

칼빈은 음악에 대한 그의 견해가 무슨 자료에서 기인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인문주의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것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네바 시편 성가집 서문」에서는 완벽한 형태로 인문주의적 원리들이 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음악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문서일 것이다.<sup>21)</sup> 이에 대한 한 사람의 평가에 더 주목해 보자. “음악에 대한 그 종교개혁자의 가장 중요한 이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 서문은 종교개혁의 음악적 미학의 총체로서, 그것의 프로그램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하다.”<sup>22)</sup>

그는 1542년에 이 “서문”을 썼으며, 1543년(6월 10일)에 두 페이지에 걸친 내용을 첨가하였다. Doumergue는 이 첨가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이 두 페이지는, 사실상, 그 서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분으로서, 노래 부르고 음악을 칭송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루터 자신도 결코 그 부분을 능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sup>23)</sup> 그 “서문”이 왜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칼빈 학자들과 음악학자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1542년 본문에는 “노래부르기”(chanterie)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 확대된 본문에는 “일터”(champs)에 까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통한 기도와 찬송과 명상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라고 첨가함으로써 음악의 컨텍스터를 더 의미심장하게 만들었

---

생각들 즉, 플라톤주의에 반해 있던 뷔데와 다른 이들이 주장했던 “세계-혼” 사상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주장된 것은 아니다. See Bohatec, *Budé und Calvin*, p.467. 보하텍은 그 곳에서 “세계-혼” 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강조에서 그는 르네상스의 생각들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은총 교리는 그를 뷔데와 다른 현대 사상가들을 구별시켜 줄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인문주의자들로부터 그를 필연적으로 분리시키지는 않는다.

21) Garside, op. cit., p.567.

22) Léon Wencelius, *L'Esthétique de Calvin* (Paris, 1938), 281.

23) Doumergue, op. cit., p.337.

다.

그 “서문” 확대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는 음악의 기원들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강요당하는데, 이는, 칼빈이 1542년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기쁨은 그것의 참된 목적으로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헛된 것을 기뻐하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추천하시는 영적 즐거움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부여하셨다. 칼빈은 음악을 이러한 수단들 가운데, “그 첫째가 아니면, 그 주역 가운데 하나”로서 보고있으며, “그러한 사용을 위해 위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한 음악가의 터무니 없는 열심이 아니라, 원래 법률가요,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인간의 매우 이성적이며 냉정한 진술인 것이다.<sup>24)</sup>

1542년 “서문”에서 칼빈은 역사적이며 제도적인 근거들 위에서 음악에 대하여 변호하였다. 음악은 “교회의 첫 기원으로 부터...” 존재하였으며,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543년 “서문”에서는 그같은 변호 어조가 사라지고, 음악의 기원들이 형이상학적인 기반들 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음악을 “하나님의 선물”(don de Dieu)로서 정의하고 난 후,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오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것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그것을 우리의 정죄로 전환시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1542년 “서문”에서 “노래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불지르는 위대한 힘과 활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으로 안다.”고 하는데, 1543년 “서문”에서는 플라톤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1543년 “서문”에서는 예전서 밖의 음악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곡조가 “교회에서 노래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1542-1543년 어간에 칼빈의 음악적 사고는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 이 발전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1536년 판에서는 80단어에서,<sup>25)</sup> 1542년 판에서는 140단어로, 1543년 판에서는 917단어<sup>26)</sup>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24) Garside, op. cit., pp. 572-73.

25) 제 3장 2절.

26) 제 3권 20장 32절.

### Ⅲ. 칼빈의 음악관

칼빈은 “음악외에” “인간의 특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아무 것도 없다.”고 한 플라톤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sup>27)</sup> 그는 인간 역사에서 그 동일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읊어진 시편들을 격찬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들을 노래함으로써 선한 다윗 왕과 결합하게 된다고 제안한다.<sup>28)</sup> 교회에서 행해진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교화를 위해야만 한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참고문이다.<sup>29)</sup>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들과 기도들을 하도록 권고하는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은, 모든 악한 말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경고의 말씀과 짝을 이룬다.<sup>30)</sup> 칼빈 역시 신령한 노래들은 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불러야 한다는 바울의 권고를 반복하고 있다.<sup>31)</sup> 천사들과 사귀을 가지기 위한

27) “Car à grand peine y a il en ce monde qui puisse plus tourner ou flechir ça et là les meurs des hommes, comme Plato l’a prudemment conyderé.”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I, ed. by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edus Reuss(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867), p.170. 이하부터는 C.O.로 약칭한다. 칼빈은 플라톤의 *Polit.*, III, 12와 *Leg.*, II, 8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

28) “parquoy quand nous aurons bien circuy par tout pour chercher ça et là, nous ne trouverons meilleurs chansons ne plus propres pour ce faire, que les Pseaumes de David: lesquelz le saint Esprit luy a dictz et faitz.” *Ibid.*, p.171. “...il s’accoustume cy apres à chanter ces divins et celestes Cantiques avec le bon Roy David.” *Ibid.*, p.172.

29) “Car nostre Seigneur n’a pas institué l’ordre que nous devons tenir, quand nous convenons en son Nom, seulement pour amuser le monde à veoir et regarder: mais plustost a voulu, qu’il en revint profit à tout son peuple. Comme saint Paul tesmoigne, commandant que tout ce qui se fait en l’Eglise soit rapporté à l’edification commune de tous.” *Ibid.*, p.165.

30) “Nous avons le commandement expres du saint Esprit, que les oraisons se facent en langue commune et congneue au peuple. Et dit l’Apostre, que le peuple ne peult respondre, Amen, à la priere qui a esté faite en langue estrange.” *Ibid.*, p.167. “Il est vray que toute parolle mauvaise (comme dit saint Paul) pervertit les bonnes meurs...” *Ibid.*, p.170.

31) “Au reste, il nous faut souvenir de ce que dit S. Paul, que les chansons



하나의 준비로서 시편들을 노래하도록 남자들과 여자들, 심지어 어린이들에게 까지 행한 크리소스톰의 권고 역시 인용되고 있다.<sup>32)</sup> 어거스틴은 다섯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처음 두번은 성례에 대한 칼빈의 논의에서이고, 세번 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일하게 가치있는 요소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다 어거스틴의 진술이 예배를 위한 시편들의 우수성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3)</sup> 어거스틴이 노래함에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함에 대하여 역설한 내용도 인용되고 있으며,<sup>34)</sup> 최종적으로는 “무계와 위엄”을 갖춘 음악에 대한 칼빈의 호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다.<sup>35)</sup>

칼빈은 “고대 교회의 박사들”과 외설적인 노래들을 두고 그들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치명적이며 사탄적인 독소”라 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sup>36)</sup> 바울과

spirituelles ne se peuvent bien chanter que de cuer.” Ibid., p.171. 이 귀절은 에베소서 5:19이거나 골로새서 3:16 중 하나를 가리키든지 혹은 아마도 두 성경 귀절 다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엡 5:19은 보다 짧은 슈트라스부르 서문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n quoy me semble qu’auras grande utilité tant pour la sainte doctrine louenges et graces a dieu, exhortations a esperer a la bonté et misericorde divine, et semblables choses que tu trouveras en ces pseaulmes, que pour le bon exemple que tu pourras donner a ton prochain, pour l’exciter a lire la sainte escripture, et comme s. Paul nous enseigne chanter et dire pseaulmes au seigneur, louenges et chansons spirituelles, rendans tousiours graces a dieu pour toutes choses, au nom de nostro seigneur Jesu Crist.” O.S., p.12, citd in Ross James Miller, “John Calvin and the Reformaton of the Church in the Sixteenth Century.” (Claremont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1971.), p.239, 각주 16번. 골 3:3:16은 1542년과 1545년의 슈트라스부르 시편 성가집의 제명 속에 인용되고 있다. See Pidoux, *Le Psautier huguenot*, II, 14, 29.

- 32) “Parquoy Chrysostome exhorte tant hommes que femmes et petis enfans, de s’accoustumer à les chanter, afin que cela soit comme une meditation pour s’associer à la compagnie des Anges.” C.O., VI, 171. 이것은 크리소스톰의 시편 41:1-2 주석에서 인용한 것이다.
- 33) “Or ce que dit S. Augustin est vray, que nul ne peut chanter choses dignes de Dieu, sinon qu’il ait receu d’iceluy.” C.O., VI, 170-171: see Augustine, *In Ps. 34, sermo 1*, 1: M.P.L., 34, 323.
- 34) “Or le cuer requiert l’intelligence. Et en cela (dit saint Augustin) gist la difference entre le chant des hommes et celuy des oyseaux. Car une Linote, un Roussignol, un Papegay, chanteront bien, mais ce sera sans entendre. Or le propre don de l’homme est de chanter, sachant qu’il dit.” C.O., VI, 171. See Augustine, *In Ps. 18, enarrat. 2*, 1: M.P.L., XXXVI, 157.
- 35) “Il ya tousjours à regarder, que le chant ne soit pas legier et volage: mais ait pois et maiesté, comme dit saint Augustin....” C.O., VI, 169.
- 36) “...les Docteurs anciens de l’Eglise se complaignent souventesfois de ce que

어거스틴은 칼빈에게 있어서 주요한 권위자들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권위자는 아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음악에 관하여 플라톤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예전관과 음악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성경의 자료들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sup>37)</sup> 더구나 바울과 어거스틴은 음악에 관하여 인문주의자들도 즐겨 찾는 권위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서문”에서 칼빈이 인용한 바울의 귀절은 16세기에 교회 음악의 개혁에 관심있던 모든 자들에게 표준구(*loci classici*)였다.<sup>38)</sup> 게다가, 칼빈은 인문주의 저작자들이 자기들의 음악적인 견해들을 확인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한 어거스틴의 본문들에 역시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동시에 칼빈이 음악에 대한 고전적 견해들을 주석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부들의 본문들을 요약하지도 않은 것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의 전거 문서의 체계는 성경의 증거들을 초대 교회의 본보기들과 고전 시대에 시작된 발전의 최고조로서의 위대한 교부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가장 인문주의적인 음악 논문들 것 하고는 다르다.<sup>40)</sup> 교부들과 고전 작가들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되는 확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에 불과한 것이다.<sup>41)</sup>

le peuple de leur temps estoit addonné à chansons deshonnestes et impudiques, lesquelles non sans cause ilz estiment et appellent poison mortelle et Satanique pour corrompre le monde.” Ibid., VI, 170. 칼빈은 앞에 인용된 어거스틴의 귀절 혹은 Sermo 9, 4, 5; M.P.L., XXXVIII, 79 등을 즐겨 언급한다. Cf. Chrysostom, *In Ps.* 41, 1.2, bk. 5, pp.157f; *In Matt.*, hom. 68, 4, bk. 7, 760ff.

37) See Comm. on 1 Cor. 14:7; C.O., XLIX, 520.

38) See *supra*, pp.213-14, 230, 233. 특히 고전 14장에 근거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강조에 주목하라, *supra*, p.259.

39) 아마도 「고백록」 제 10권에 언급된 것같은, 음악은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무게와 위엄”을 지닌다고 호소한 것 외에, 그 “서문”에 나오는 인용구들은 「기독교 강요」에서 노래부르기에 관한 부분에서 인용되고 있는 귀절들과 같이 명백한 표준구는 아니다. See *infra*, pp.173-76.

40) Tinctoris, Glareanus, Zarlino 등에 의한 전거 문서들의 활용에 대하여 위의 172-77 쪽을 보라.

41) 칼빈이 고전 작가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듯이, 그는 이교 작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인도하는 의존할만한 안내자라는 것이다, *Inst.*, I, 6-10. 칼빈의 교부들에 대한 평가는 1536년판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C.O., II, 18-20. 칼빈은 그리스도의 지상권과 교회의 판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 교부들의 전거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칼빈도 인문주의자들과 루터, 쾰링글리, 부쩌 등과 같이, 음악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밀스럽고도 불가사이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42) 이 위력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한다:

“사람의 심신을 일신시키고,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데 적합한 다른 여러 가지 중 음악은 단연 으뜸이거나, 주요한 것들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활용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선물로서 가치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sup>43)</sup>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기 때문에, 음악이 오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왜곡된다면, 그것의 위력은 많은 악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악한 말은 도덕을 부패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멜로디가 그것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악한 것은 마음 속에 더 깊숙히 침투한다. 깔때기를 통하여 포도주가 항아리 속으로 부어지듯이, 그 독소와 부패는 멜로디에 의해 마음 깊숙히 침투한다.”<sup>45)</sup>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가시처럼 작용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작품들을

42) “Car à grand peine y a il en ce monde qui puisse plus tourner ou flechir ça et à les meurs des hommes, comme Plato l’a prudemment consyderé. Et de fait nous experimentons qu’elle a une vertu secrete et quasi incredible à esmouvoir les cueurs en une sorte, ou en l’autre.” Ibid., VI, 169.

43) “Or entre les autres choses, qui sont propres pour recreer l’homme et luy donner volupté, la Musique est, ou la premiere, ou l’une des principales: et nous faut estimer que c’est un don de Dieu deputé à cest usaige.” Ibid., 170. 이 귀절은 루터의 말과 상당히 흡사하다, see O.S., II, 210.

44) “Parquoy, d’autant plus devons nous regarder de n’en point abuser, de peur de la souiller et contaminer, la convertissant en nostre condamnation où elle estoit desdiée à nostre proffit et salut.” C.O., VI, 170.

45) “Il est vray que toute parolle mauvaise (comme dit saint Paul) pervertit les bonnes meurs, mais quand la melodie est avec, cela transperce beaucoup plus fort le cueur et entre au dedans tellement que comme par un entonnoir le vin est iecté dedans le vaisseau, aussi le venin et la corruption est distillé iusques au profond du cueur, par la melodie.” Ibid. 부쩌의 영향이 이 점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see Charles Garside, Jr.,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August 1979), p.7.

묵상할 수 있도록 품위있게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노래하는 것이다.”<sup>46)</sup>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노래들은 어디서 발견하는가? 분명한 보화는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주셨던 시편들”이다. 우리가 이 노래들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 우리 속에서 노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말씀을 두시는 것임을 확신한다.”<sup>47)</sup> 이 시들을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열심과 자기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48) 그들의 행동들은 역시 분명한 도덕적 결정을 반영한다:

“오로지 세상 사람에게 얼마간 헛되고 경솔하며, 얼마간 어리석고 서투르며, 얼마간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그 결과 악하고 위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온 그러한 노래들 속에서, 이 시간부터, 선한 왕 다윗과 더불어 신적인 하늘의 찬송들을 노래하기에 그 자신을 적합하게 만들도록 충고하는 일이다.”<sup>49)</sup>

음악의 오용을 다루고 있는 이 귀절들은 그것의 영향이 음악적 작곡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외설적이거나 경솔한 텍스트(歌詞)들에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서문”의 두 곳에서 칼빈은 음악 자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칭송하고 난 다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이것이(음악) 그 자체만으로 고려될 때, 우리가 음악을 온건하게 사용하는 것을

46) “Or qu’est-il doncq question de faire? c’est d’avoir chansons non seulement honnestes, mais aussi saintes: lesquelles nous soyent comme esquillons pour nous inciter à prier et louer Dieu, à mediter ses oeuvres, afin de l’aymer, craindre, honorer et glorifier.” C.O., VI, 170.

47) “Or ce que dit S. Augustin est vray, que nul ne peut chanter choses dignes de Dieu, sinon qu’il ait receu d’iceluy: parquoy quand nous aurons bien circuy par tout pour chercher çà et là, nous ne trouverons meilleures chansons ne plus propres pour ce faire, que les Pseaumes de David: lesquelz le saint Esprit luy a dictz et faitz. Et pourtant, quand nous les chantons, nous sommes certains que Dieu nous met en la bouche les parolles, comme si luy-mesmes chantoit en nous pour exalter sa gloire.” C.O., VI, 170-71.

48) “Pour ces raisons ce present livre mesme pour ceste cause, outre le reste qui a esté dit, doit estre en singuliere recommandation à chascun qui desire se resiouyr honnestement et selon Dieu, voire à son salut et au proffit de ses prochains.” Ibid., 171.

49) “...seulement que le monde soit se bien advisé qu’au lieu de chansons en partie vaines et frivolles, en partie sottes et lourdes, en partie sales et vilaines, et par consequent mauvaises et nuysibles, dont l a usé par cy devant, il s’accoustume cy apres à chanter ces divins et celestes Cantiques avec le bon Roy David.” Ibid.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음악은 매우 품위있게 연주되어야 하며, 붕괴를 향하여 고삐를 느슨하게 하거나, 매혹적인 혼란으로 우리를 유약하게 하는 경우가 결코 없어야 되며, 또한 부도덕함이나 몰염치함의 도구로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50)</sup>

칼빈이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음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음악의 정당한 기회에 대한 문제이다. 그 속뜻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그것의 위력을 대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혹적인 혼란으로”하는 말은 어떤 종류의 음악 즉, 아마도 본문의 의미를 전달함이 없이 “오로지 귀만을” 즐겁게 하는 교묘한 다성적 처리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sup>51)</sup>

나중에 칼빈은 그 “서문”에서 음악은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자기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음악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필자는 두 부분으로 즉, 자구 혹은 주제와 내용, 두번 째로 노래나 곡조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sup>52)</sup>

특히 텍스트들이 노래로 불려질 때, 신중한 가사들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난 후, 칼빈은 곡조에 관하여, 이번 경우에는, 시편 곡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곡조로 말한다면, 곡조가 주제에 적절한 무게와 위엄을 유지하며, 아울러 이미 이야기 되어온 것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노래부르기에 온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정한 바대로 온건하게 되는 것이 최상의 것으로 보인다.”<sup>53)</sup>

50) “Quand il n’y auroit autre consideration que ceste seule, si nous doit elle bien esmouvoir à moderer l’usage de la musique, pour la faire servir à toute honnesteté et qu’elle ne soit point occasion de nous lascher la bride à dissolution, ou de nous effeminer en delices desordonées, et qu’elle ne soit point instrument de la paillardise ne d’aucune impudicité.” Ibid., p.170.

51) See Miller, op. cit., p.244, 각주 36번. 칼빈 이후의 칼빈파 교회 지도자들은 화성으로 노래해서는 안된다고 칼빈을 이해하고 있다. 「1556년 제네바 예배서」가 “단조로운 선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단조로운 선율’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음악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화성으로 노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 of the Genevan Service Book* (Edinburgh, 1931), p.88.

52) “Or en parlant maintenant de la Musique, ie comprends deux parties, asçavoir la lettre, ou subiect et matiere. Secondement le chant, ou la melodie.” C.O., VI, 170.

53) “Touchant de la melodie, il a semblé advis le meilleur qu’elle fust moderée, en

칼빈이 음악을 신성한 텍스트에 명확히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16세기 인문주의자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그들의 이론 중 하나는 음악과 텍스트는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고전적 전거 본문 중 가장 권위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플라톤의 견해에 의지하여, 자를리노(Zarlino)는 고대에 “음악은 詩歌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시가 음악으로부터 분리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sup>54)</sup> 이러한 인문주의적 관점은 그 당시 프랑스에 극도로 대중적이었다.<sup>55)</sup>

칼빈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단순한 유형의 음악을 선호했다.<sup>56)</sup> 칼빈은 이 지점에서 기악 음악이나 다성부 음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생략은 의미 심장하다 아니할 수 없다. 시편들은 건전한 기독교 찬송들을 위한 최상의 텍스트임에 틀림없다. 추측상, 이 시편들을 반주하기 위해 선택된 음악의 종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안성맞춤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칼빈은 단선율의 성악을 선호한 인문주의자들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sup>57)</sup>

예전 음악에 대하여 칼빈은 역시 많은 부분들을 인문주의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단순성을 지니고 있던 초대 교회의 예전<sup>58)</sup>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칼빈은 “고대 교회의 관습과 일치하는 성례들을 집행하며 결혼을 신성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기도들과 교회의 찬송들의 형식”<sup>59)</sup>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인문주

---

la sorte que nous l'avons mise pour emporter poids et maiesié convenable au subiect, et mesme pour estre propre à chanter en l'Eglise selon qu'il a esté dict.” Ibid., p.172.

54) Zarlino, *Istitution Harmoniche* (Venice, 1538), p.80, quoted by P. Walker, “Musical Humanism in the 16th and early 17th Centuries,” *The Music Review*, II, (1941), No.4, p.6.

55) Pontus de Tyard, *Solitaire Second ou Prose de la Musique* (Lyon, 1555). See Walker, op. cit., p.289.

56) Charles Garside, Jr.,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 a Re-Appraisal,” *The Musical Quarterly* 37 (1951), p.576.

57) Miller, op. cit., p.245, 각주 40번을 보라.

58) Karl H. Wörner, 「音樂의 歷史」, 金賢順역(서울: 국제 출판사, 1983), pp.100-106. 그리고 H. 라이히텐트리트, 「音樂史」, 金晋均역(서울: 學文社, 1983), pp.50ff; Donald J. Grout, 「서양음악사」(上), 김균진외역(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p.40 등을 참조하라.

59) 1542년의 시편 성가집과 예전서의 전체목은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s, avec la maniere d'administrer les sacremens et consacrer le mariage selon la coustume de l'eglise ancienne.” C.O., VI, 161.

의자들 보다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 더 밀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르페브르, 모어(More) 등은 신약 성경의 예배의 이상들을 복구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을 확인하지 않았다. 60)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사용에 대하여 보다는 본래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 그 개혁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의식들을 참되게 존중하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사용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목적을 지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sup>61)</sup>

이같은 관심은 칼빈이 기도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음악을 포함하여, 예배의 모든 국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公祈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이는 단순히 말씀을 사용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음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신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울도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언급하고 있다.”<sup>62)</sup>

음악은 만약 그것이 정당하게만 사용된다면 예배에 있어서 강력한 보조물이 된다.

“그리고 진실로, 찬송은 보다 생생하고 열렬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원하고 찬양하

60) 칼빈은 제시된 의식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Car nostre Seigneur n’a pas institué l’ordre que nous devons tenir, quand nous convenons en son Nom, seulement pour amuser le monde...” Ibid., p.166. Büsser는 칼빈이 초대 교회 때의 음악의 사용에 관한 역사적 문서에 흥미를 둔 것 보다는 신약 성경과 어거스틴이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Calvin und die Kirchenmusik,” p.99.

61) “Pourtant, si nous voulons bien honorer les saintes ordonnances de nostre Seigneur, desquelles nous usons en l’Eglise, le principal est de sçavoir, qu’elles contiennent, qu’elles veullent dire, et à quelle fin elles tendent: afin que l’usage en soit utile et salutaire, et par consequent droictement reiglé.” C.O., VI, 166.

62) “Quant est des prieres publiques, il y en a deux especes. Les unes se font par simple parole: les aultres avecque chant. Et n’est pas chose inventée depuis peu de temps. Car dès la premiere origine de l’Eglise cela a esté, comme il appert par les histoires. Et mesmes saint Paul ne parle pas seulement de prier de bouche, mais aussi de chanter.” Ibid., pp.168-69. 추측상, 칼빈이 역사가들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는 유세비우스일 것이다(Hist. eccl. V, 28, 5, 혹은 VIII, 30, 10, 그리고 Theodoret, Eccl. hist., II, 24, 그리고 III, 10. 기도와 찬트의 밀접한 관련은 부찌에게 있어서도 역시 특징적이다: Miller, op. cit., p.248, 각주 44번을 보라.

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불타오르게 하는 크나 큰 힘과 생기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곡조가 경박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오히려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같이 심오하고 위엄있는 것이어야 함을 늘 주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식탁과 가정에서 사람들의 심신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악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면전에서 불러지는 시편 성가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sup>63)</sup>

칼빈은 다른 종류의 음악으로부터 시편 성가들을 구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령한 노래들? 頌詩? 器樂? 그 어느 것도 외설적이지 않음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서문”의 앞부분은 교회 음악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자들 쾰빙글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은 베른이나 제네바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가지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즉, 1) 이것은 초대 교회때부터 실행되어온 것이라는 점과, 2) 경건을 북돋아 주는 데 유용하다는 것은 체험이 말해준다는 것이다. “입으로”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특별히 인용되고 있다.<sup>64)</sup> 칼빈은 시편 성가들이 특별히 신성한 음악이며, 예전에 알맞으며, 어떤 다른 음악과 비교되지 않으며, 다른 음악에 근거해서 비판될 수도 없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어하고 있다. 칼빈은 그 “서문”을 완성시키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식탁과 가정” 음악의 두 부류 즉, 점잖은 것과 외설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가정과 일의 현장”을 위하여 시편 성가들 보다 더 나은 음악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63) “Et à la verité, nous connoissons par experience, que le chant a grand force et vigueur d’esouvoir et enflamber le coeur des hommes, pour invoquer et louer Dieu d’un zele plus vehement et ardent. Il y a tousiours à regarder, que le chant ne soit pas legier et volage: mais ait pois et maiesté, comme dit saint Augustin. Et ainsi il y ait grande difference entre la musique qu’on faict pour resiouyr les hommes à table et en leur maison: et entre les psalmes, qui se chantent en l’Eglise, en la presence de Dieu et de ses anges.” C.O., VI, 169.

64) 칼빈은 그의 슈트라스부르의 “서문”에서 오로지 사편들을 노래하는 것의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see f.n.255. Garside는 제네바 “서문”의 변증적 어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 p.568). Gaillard는 그것을 쾰빙글리의 견해에 대하여 교회 음악을 변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Loys Bourgeois*, p.27. Cf. 칼빈은 1537년 「논문」에서 음악을 경건을 북돋우기 위한 보조물로서 칭송하고 있다(See *supra*, pp.63-64).



최종적으로, 칼빈은 텍스트들의 可解性에 대한 낯익은 강조를 반복하고 있다. 칼빈은 바울이 표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동 교화”(edification commune)를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성례들의 정당한 사용을 다루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기도나 예식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함이 없이 그것들으로써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웃음거리이다...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말로 기도하라는 성령의 표현된 명령이 있다. 그 사도께서 역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행해진 기도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없다고 하셨다...우리가 성례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만약 우리가 그것들의 참된 본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깃들여 있는 신비들을 해석함이 없이, 보이는 것 외에 그것들에 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식들을 거행하는 것은 왜곡된 관습임을 인지한다.<sup>65)</sup>

그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노래의 可解性이 강조되고 있다.

“역시, 우리는 신령한 노래들은 오로지 마음으로부터만 불려질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해성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점(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 사람들의 노래와 새들의 노래들 사이의 차이점인 것이다. 흥방울새, 나이팅게일, 어치 등은 너무나 잘 노래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독특한 은사는 노래하는 것이며 그가 말하고 있는 바를 안다는 것이다. 이해력 뒤에 마음과 감정이 뒤따르며, 그것들은 노래가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기를 결코 멈출 수 없을 때에만 오로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sup>66)</sup>

65) “Comme saint Paul tesmoigne, commandant que tout ce qui se fait en l’Eglise soit rapporté à l’edification commune de tous. ...Car de dire que nous puissions avoir devotion, soit à priere, soit à ceremonie, sans y rien entendre, c’est une grande moquerie....Nous avons le commandement express du saint Esprit, que les oraisons se facent en langue commune et congneue au peuple. Et dit l’Apostre, que le peuple ne peult respondre, Amen, à la priere qui a esté faite en langue estrange. Or est-il ainsi que puis qu’on la fait au nom et en la personne de tous, que chascun en doit estre participant...Quand est des Sacremens, si nous regardons bien leur nature, nous congnoistrions, que c’est une coustume perverse de les celebrer en telle sorte, que le peuple n’en ayt sinon la veue, sans exposition des mysteres qui y sont contenez.” C.O., VI, 166-67.

66) “Au reste, il nous faut souvenir de ce que dit S. Paul, que les chansons

칼빈에 따르면, 이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정의 선행 조건이다. 지성(mind)이 텍스트를 간직하고 있을 때, 마음(heart)이 적당히 반응할 수 있다. 이 말들은 시편 성가집의 광의의 목적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텍스트들과 곡조들은 공예배를 위한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각자의 자기 일상 생활을 위한 자원들로서도 의도된 것임을 볼 수 있다.

##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보건대, 칼빈은 음악가가 아니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악에 대해 상찬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임이 드러났다. 그 “서문”은 칼빈이 음악에 대한 뚜렷한 이론 즉, 텍스트와 곡조의 이중적 하나임에 대한 이론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곡조는 텍스트를 헤아릴 수 없이 양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며 따라서 그것은 가볍고 경솔해서는 안되며, 그 텍스트에 적합한 무게와 위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종교적 활용을 위하여 적합한 텍스트는 단 하나로서 그것은 다윗의 시편들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치있는 것들을 노래할 수 있는 자는 없으며, 이 시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미실 때 신적으로 영감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음악은 교회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것은 기도와 풀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설교와 성례전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예식 준수에 세가지 불가결한 양상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 내의 음악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

---

spirituelles ne se peuvent bien chanter que de cueur. Or le cueur requiert l'intelligence. Et en cela (dit saint Augustin) gist la difference entre le chant des hommes et celui des oyseaux. Car une Linote, un Roussingnol, un Papegay, chanteront bien, mais ce sera sans entendre. Or le propre don de l'homme est de chanter, sachant qu'il dit: apres l'intelligence doit suivre le cueur et l'affection, ce qui ne peut estre que nous n'ayons le cantique imprimé en nostre memoire pour ne iamais cesser de chanter.” Ibid., p.171. Cf. 비레(Viret)가 그의 *Metamorphose chrestienne*(pp.322-24)에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Burdet의 *Musique dans le pays de Vaud*에 인용되었음).

는 것이다. 칼빈의 “서문”은 한 신학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16세기 인문주의적 음악의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본다.

### 〈참 고 문 헌〉

- Breen, Q.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 Hamden, Conn.: Archon Books, 1968.
- Buszin, W. E. “Luther on Music.” *The Musical Quarterly*, XXXII, 1946.
- Doummergue, E. *Jean Calvin*. Lausanne, 1910.
- \_\_\_\_\_. “Music in the Work of Calvi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Vol.7, No.4, October 1909.
- Garside, Jr., C. “Calvin’s Preface to the Psalter:a Re-Appraisal.” *The Musical Quarterly* 37, 1951.
- \_\_\_\_\_. “Some Attitudes of the Major Reformers toward the Role of Music in the Liturgy.” *McCormick Quarterly* 21, 1967-1968.
- \_\_\_\_\_.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August 1979.
-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上). 김균진외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I, ed. by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edus Reuss. 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1867.
- Maxwell, W. D. *The Liturgical Portion of the Genevan Service Book*. Edinburgh, 1931.
- Miller, R. J.,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in the Sixteenth Century.” Claremont Graduate School Ph.D. Dissertation, 1971.
- Parker, T. H. L. “A Bibliography and Survey of the British Study of Calvin 1900-1940,” in *The Evangelical Quarterly*, XVIII, 1946.
- Walker, P. “Musical Humanism in the 16th and early 17th Centuries.” *The*

*Music Review*, II, No.4, 1941.

Worner, Karl H. 「音樂의 歷史」. 金賢順역. 서울: 국제 출판사, 1983.

라이히텐트리트, H. 「音樂史」. 金晉均역. 서울: 學文社, 1983.